

북한 시장물가 조사방법 및 개선점

정승호 |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부교수 | shjung@inu.ac.kr

1. 머리말

북한의 시장물가 데이터는 북한경제 분석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진전되고, 북한주민의 소득과 소비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북한경제에서 시장물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¹⁾ 이에 따라 북한 시장물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분석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이후 ‘북한 시장가격’을 키워드로 국내 관련 연구를 검색하면, 학술논문만 66건이고 도서, 학위논문 등 기타 자료까지 포함하면 80건의 연구가 확인된다.²⁾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시장가격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무역, 대북제재의 영향, 식량 사정 및 경기동향 등 북한경제의 다양한 영역을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가격 데이터의 활용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장가격 데이터가 어떻게 조사되고, 현재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에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물가 조사의 경우 가격 변동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조사 품목, 조사 구역, 조사 권역, 조사 대상처 등의 세부사항을 매뉴얼로 정하여 공개한다.³⁾ 통계 작성 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격 데이터는 결과물인 가격정보만 공개될 뿐이고,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1)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에 근거한 연구에 의하면, 북한주민의 시장을 통한 소득 창출 및 지출의 비중은 대략 전체 소득 및 지출의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김병연·양문수, 2012; Kim, 2017; DuMond, 2017).

2) 한국학술지인용(www.kci.or.kr), 국회도서관(dl.nanet.go.kr) 등에서 검색하였다.

3)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2. 12.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이는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는 있다. 북한 조사의 경우는 ‘정확성’과 함께 ‘조사원 안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자료 자체를 중요기밀로 취급하고 있으며,⁴⁾ 특히 시장물가 자료의 경우에는 현지 조사원으로부터 핸드폰 통화나 문자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단속에 적발될 위험이 크다(김규철, 2021).

그러나, 가격 조사의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장소, 조사 가격의 기준, 품질 기준, 조사 시점, 결측치 처리 등의 기본적인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 사용자인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사방법이 불분명한 데이터는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분석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현재 국내에서 북한물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세 기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물가 조사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현재 조사방식 내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본고의 내용은 인터뷰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개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또는 조사원을 식별할 수 있는 지명, 명칭, 품목 개수, 세부적인 조사방식 등의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고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가격 조사방법을 장소 선정, 가격 기준, 조사 주기 및 시점, 품질 및 규격 기준, 환율 조사 및 외화표시가격 처리 방법, 결측치 처리 및 검증 등의 순서로 설명한다. 3절에서는 전체 내용을 개괄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한다.

II. 가격 조사방법

1. 장소 선정

북한의 시장가격이 조사되는 지역과 각 지역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시장은 기관마다 차이를 보였다. 조사 지역은 5~10개 지역까지 다양했는데, 이는 조사 기관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컸다. 북한 가격 조사는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성이 큰 만큼, 신뢰 가능한 조사원이 확보된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지역별 조사하는

4) “통계자료는 중요기밀이다. 통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계자료관리체계를 바로세워 기밀을 보장하여야 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계법』, 제28조)

시장 개수는 대부분 1개로, 보통 규모가 크고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식 종합시장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지역 내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이 함께 있는 경우는 도매시장 가격을 별도로 조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에도 시장가격은 소매시장을 기준으로 보고하고, 도매시장 가격은 개별 품목의 가격보다는 전반적인 물가와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시장 내에서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대체로 ‘안전’이 우선 고려되었다. 당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원이 주로 가는 업체 또는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조사 기관들은 조사 대상 업체의 선정과 관련되어 일정한 기준은 가지고 있었다. 공통적인 부분은 공식 매대와 시장허가증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노점(메뚜기 장사) 등 비정기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었다.

2. 가격 기준

UN의 가격조사 매뉴얼에서는 조사 가격을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 구입 시 실제 지불하는 가격(the actual transaction prices of goods and services purchased by the consumer, including all taxed)’으로 정의한다.⁵⁾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도 조사 담당자가 지정된 조사 대상처에서 소비자들이 조사 규격에 해당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구입 또는 이용하면서 실제 지급하는 가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은 상품의 판매자에게 가격을 묻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러나 가격 협상(price bargaining)을 통해 최종 구입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협상 능력, 구매 의사 등에 따라 최종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뉴얼에서는 다른 조사방법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조사원이 소비자와 같이 가격 흥정을 한 이후 가격을 조사하거나(Survey by purchase of product, simulating a consumer), 실제 물품을 구입한 여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Survey of purchaser)하는 방식이 사용된다.⁷⁾ 북한의 종합시장도 남한의 재래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흥정을 통해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원이 가격 협상 이후 최종 지급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좀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 기관들은 가격 조사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5) Brian Graf, *Consumer Price Index Manual: Concepts and Method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0.

6)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2. 12.

7) Brian Graf(2020).

기관에서는 국제 기준과 유사하게 조사자가 자신의 장 보는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는 판매자가 처음으로 말한 호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시장 전반에서 거래되는 시세를 조사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기관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가격을 보고하는 것은 공통적이었다. 북한 당국이 시장가격을 규제하기 위해 제시하는 한도가격 등을 시장가격 조사에 포함하는 곳은 없었다.

3. 조사 주기 및 시점

조사 주기는 기관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일정 기간 평균 가격(Period-of-Time)이 아니라, 조사 당일 가격(Point-in-Time)을 기준으로 보고하였다. 모든 기관이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격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조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조사 일자 는 사람들이 시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말과 주초에 주로 실시하였다. 변동 폭이 적거나 중요도가 낮은 품목은 한 달에 한 번 조사하는데, 대부분 월말 조사 가격을 기준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사원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장 보는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일관되게 조사 일자를 맞추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조사 날짜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조사한 당일의 가격이 아니라, 조사하기로 예정된 날짜의 가격을 판매자에게 물어 인위적으로 조사 일자를 맞추는 사례도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판매자의 기억에 의존한 조사가 되므로 실제 가격과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사 시간은 정상가격으로 거래되는 낮 시간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기관도 있었지만, 시간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곳도 있었다. 조사 시점은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오후 시간대는 피하려고 하지만, 조사원이 실제로 장 보는 때와 가격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간을 특정하여 조사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4. 품질, 규격의 기준

가격 조사에 있어 통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품질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인다. 우선 품질 관련하여 조사 기관 가이드라인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로 곡물 및 식자재와 관련된 것으로, 원산지를 구분하여 조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쌀, 옥수수 등을 중국산과 북한산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둘째, 공산품 중 담배나 술과 같이 여러 종류의

제품이 있는 경우는 특정 상표를 지정하여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품질의 질적인 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각각을 따로 조사한다. 예를 들어 동태, 오징어 등의 수산물은 냉동, 생물, 말린 것 등을 구분하여 조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았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큰 경우, 일정한 품질의 가격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또한 품질 기준도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일부는 최상급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일부는 소비가 가장 많이 되는 품질을 기준으로 하였다. 옷, 내의, 양말과 같이 일정한 규격과 품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격대를 조사하거나, 가장 낮은 품질의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규격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kg으로 일치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료 품목은 환산이 어려워 시장에서 판매하는 단위 그대로를 조사하거나, 조사 이후 kg당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조사가 주로 조사원이 장을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단위, 크기, 중량을 일치시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5. 환율 조사 및 외화표시가격 처리

시장환율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 1회~월 2회 등 상품 가격에 비해 좀 더 짧은 주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상은 시장에 나와 있는 돈장사(환율상)로 하였다. 돈장사끼리는 답합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시장 내에서 환율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일관된 조사를 위해 특정인을 지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다만, 환율은 환전되는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환전하려는 금액이 클수록 유리한 환율로 거래할 수 있다. 일부는 ‘50~100달러 정도 환전 시 적용되는 환율’로 일정한 기준을 정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적용 환율과 관련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어 보였다.

한편, 북한 시장은 외화통용현상이 확산되면서 상품 가격을 달러나 위안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조사된 외화가격 그대로를 보고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조사된 외화표시가격을 당시 시장환율로 환산하여 원화표시가격으로 보고하는 방식이다. 조사기관 대부분은 후자, 즉 원화표시 가격으로 변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원화로 전환할 경우, 외화표시로 판매된다는 정보가 소실되게 된다. 시장 내에서 어떤 품목이 원화 또는 외화로 주로 거래되는지 역시 시장 분석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화로 변환하여 보고하더라도, 원래 표시된 가격도 같이 보고한다면 자료의 활용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6. 결측치 처리와 검증

조사 품목은 일반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품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측치가 생기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입품의 경우는 대북제재나 국경봉쇄 등의 외부 요인 때문에 거래량의 편차가 심하고, 종종 시장에서 사라는 경우가 발생한다. 조사 품목이 시장에 없을 경우 해당 품목의 가격을 공란으로 남겨두지만, 장기간 관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품목으로 대체한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나 동원 등으로 시장 운영시간이 축소되고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 조사가 어려울 때는 판매자의 집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평소의 가격 조사방식과 다른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가격이 조사된 특수한 상황에 대해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UN 매뉴얼에서도 물가 조사 과정에서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⁸⁾

마지막으로 조사된 가격의 추가적인 검증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최근 들어 검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의 단속으로 내부와의 통화가 이전에 비해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상치가 발견된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문의하여 검증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검증을 위해 같은 시장에 대해 복수의 조사자를 두고 있다고 답한 기관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용과 안전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검증은 사실상 어려워 보였다.

III. 개선점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북한 가격 조사는 기관별로 조사방법의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가격의 기준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판매자가 제시한 판매가, 시장의 평균 시세 등으로 다르다. 품질에 대한 기준 역시 최상위, 최하위,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 등으로 기준이 제각각이었고,

8) Brian Graf(2020).

품질 기준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북한 가격 조사가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조사 기관 간 내용에 대한 공유가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 물가 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현재 조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사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조사된 가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가격 정보 이외에 물가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등으로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조사원들의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조사 간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각주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데이터 사용자는 조사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조사방법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 기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 물가조사 기관들은 대부분 언론기관으로 물가 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사 기관들이 표준적인 물가 조사방식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현재 북한물가 데이터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대출판문화원, 2012.

김규철,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 연구』, KDI, 2021.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2. 12.

Kim, Byung-Yeon,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and Tran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Graf, Brian, *Consumer Price Index Manual: Concepts and Method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0.

DuMond, Marie, *Paradise Evaporated: Escaping the No Income Trap in North Korea*, Beyond Parallel, CSIS, 2017. 7. 24.

〈웹사이트〉

한국학술지인용(www.kci.or.kr, 접속일: 2023. 8. 10).

국회도서관(dl.nanet.go.kr, 접속일: 2023. 8. 10).